

靑 조직 개편 · 개각 초읽기

선거 출마자로 결원 많이 생겨... 일부 조직 신설 또는 보강

장관 공식 농식품부 외에 '당권 도전설' 행안부·해수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정부부처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이른바 이달 말 또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이뤄질 것 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주도로 조직진단 및 부서별 업무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조직개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방향으로는 비서실을 뒷받침하는 '정책조정비서관' 신설, 체감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혁신성장' 관련 조직 보강, 국내의 무역 환경을 고려해 통상 비서관실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제도 혼선이 있던 점을 감안해 교육문화비서관 업무에서 '교육'과 '문화'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와 최저임금 문제 등 민생 해

결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관련 조직 개편도 있을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 준비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도 적지 않아 공백을 메우는 인선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달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그는 21대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면서 발생한 후임자 인선도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달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그는 21대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면서 발생한 후임자 인선도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달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그는 21대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면서 발생한 후임자 인선도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시·군장 출마자가 많았던 선

임 행정관 이하로 내려가면 청와대 공석은 더욱 늘어날다.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추후 떠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때 장하성 정책실장은 교수 정년을 마치기 위해 사임할 것이라던 보도가 나왔으나 입장문까지 내며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장 실장과 '불협화음' 논란에 휩싸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태도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에 힘을 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와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부총리가 개각 대상에 오를 경우 청와대가 불협화음 논란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예견된 개각 1순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의 전남지사 출마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석달째 수장이 비어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8월25일 전당 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각 폭을 키울 수 있다.

김부겸 장관의 경우 여의도에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는 보도가 나와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김 장관은 24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출마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당권 도전설을 부인하진 않았다.

이밖에 정책 혼선이 있거나 존재감이 미미했던 부처가 개각 명단에 오를지라도 있다. 법무부(가상화페 대응), 교육부(입시제도 반복), 환경부(미세먼지·쓰레기대란), 여성가족부(미투 열풍) 등이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때부터 잦은 설화로 교체설이 돌았으나 한반도 정세 급변기에 외교안보 수장을 바꾸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도 있다.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급물살을 타는 한반도 현안, 정책 추진의 안정성 명분 이외에 인사 청문회 문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인선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무난한 의원 출신이 임각할 것이라 전망도 많다. /뉴스1



6·25 전쟁 제68주년 행사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 향해 직진... 참전용사 헌신 보답”

이낙연 총리, 6·25전쟁 기념식서 '평화' 강조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 기회 반드시 살릴 것

안보 위에서 평화 노력 가능... 소홀함 없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어떠한 난관이 생기더라도 신념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을 향해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한 뒤 “평화와 번영이 한반도 국내의 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정부는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이미 북한은 핵실험 시설한 곳을 공개리에 폭파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미국에 약속했으며 미군 유해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남북 상호 비방방성이 중단됐고, 확성기가 철거됐다.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의 유예를 결정했다”며 “남북한 100명씩 이산가족이 8월 하순 금강산에서 재회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이 시동됐다”며 “이런 대전환을 중국, 일본,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평화 노력도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는 6.25 참전용사부터 터 신입 입관 장교와 현역 사병들까지 함께 하고 계신데,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생기지 않게 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68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에 휩싸였다”며 “남북한의 군인은 물론, 미국 등 16개국 군인이 유엔군으로 참전했고, 중공군도 전쟁에 뛰어든

고 여성들도 전후방에서 전쟁에 동참했다. 수많은 남녀 학생들이 책 대신 총을 들었고, 교포 청년들도 조국을 구하러 왔다”고 참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총리는 이어 전쟁 과정의 참상을 거론한 뒤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절망의 땅에서 우리의 위대한 국민은 다시 일어섰다. 우리 국민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맨 땅에 집과 공장을 지으며 새 삶을 일구었고, 마흔네 ‘한강의 기적’을 이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역량을 키웠다”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발전은 참전용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못한다”며 “정부는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를 한분이라도 더 찾아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사자 유해를 찾아 정중히 인치해드리는 일도 북한과 협력하며 서두르겠다”며 “DMZ 유해발굴이 시작되면 해외 참전용사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이관승 사무총장 ▲홍훈희 법륜위원장 ▲황인철 서울 광진을 지역위원장 ▲김기욱 서울 강북갑 지역위원장 ▲조군수 17대 대선후보 비서실장 ▲문정선 ▲홍승태 ▲양영두 등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지역위 직무대행 체제 인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국대의원대회 이전 지역위원회 개편대회에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를 다시 인정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출되는 2년 임기의 지역위원장들은 2020년 총선 공천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당 일각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사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인사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직무대행 여부가 관심이 쏠린 인사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비서관들은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 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역위원장직에도 고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교 끝에 지난해 10월 직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기측 인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워 지역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지역위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청와대에서 계속 일하는데 당이 박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정의당 전북 제10당 감사 기자회견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정의당 지지율은 12.88%로 가장 높았으며 출마자 중 7명이 당선됐다.

“민생 최우선 창당 초심 실현”

김관영 신임 바미당 원내대표

국회 제3당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김관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공당의 40대 기수 시대가 열렸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임 김 원내대표는 회계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시 3과 합격 이력 가지고 기획재정부 등에서 현직 전문성을 두루 갖춘 후, 19대 국회에 입성 한 후 20대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다.

초선시절부터 당 대표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당 조직사무부총장 등 원내의 요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김 대표는 선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그간 바른미래당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하다”며 “실력과 신뢰를 키우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하며 당 혁신을 예고했다. 덧붙여 김 대표에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과정에서 보여준 내용을 분할하고 지난 지방선거 참패 후 당내의 정

체제재정립은 물론 2년 남짓 남은 총선 기반을 닦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도 기생한 기존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념을 뛰어넘어 통해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오직 민생을 최우선 하는 창당 초심을 실현해내겠다”며 “당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청년실업 저출산 대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바미당, 8월 19일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뽑기로

6·13 지방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오는 8월19일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지역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당대

회라는 명칭 대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차기 지도부 선출대회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선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준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준비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고, 이 과정에서 모든 권한은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1

“문 대통령 홀로 뛰게 하지 않을 것”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차기 당권 주자 도전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을 홀로 뛰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문 대통령을 홀로 뛰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6·13 지방선거 압승, 분명 기회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민생경제 살리기, 검찰개혁, 지방분권실현, 적폐청산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것을 잘 헤쳐나기 못하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위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훨씬 더 커진 현재의 민주당, 혁신으로 모두가 단결하고 유능함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원 동지를 포함해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정신의 지속발전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결코 최고는 아니다. 하지만 젊음을 바탕으로 일 잘 할 ‘유능한 혁신가’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 6개월 간의 최고위원 경연에 이어 당 수석대변인으로서는 지난 1년여를 지켜보아온 저는 누구보다 우리 당의 장·단점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고 출마 의사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활동, 당 적폐청산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와 다스, 제2롯데월드 등 과거 정부 적폐청산에 앞장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당위원장으로 대전시장은 물론 5개 구청장 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아무런 변수와 돌풍없는, 그저 그런 전당대회야말로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주당원들의 심장을 출구로 만들어야만 2020년 총선에서의 승리와 2022년 재집권을 기약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보이시고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당원들의 따끔한 지적을 경청하고 있다. 당과 국민, 우리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 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마음으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려 한다. 제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애정어린 가르침, 기탄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1

평화당, 전준위 구성 완료... 황주홍 등 위원 11명 임명

민주평화당이 오는 8월5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준위원장은 앞서 당 워크숍에서 임명된 정인화 사무총장이 맡는다. 전준위원장은 ▲황주홍 의원 ▲장정숙 의원

▲이관승 사무총장 ▲홍훈희 법륜위원장 ▲황인철 서울 광진을 지역위원장 ▲김기욱 서울 강북갑 지역위원장 ▲조군수 17대 대선후보 비서실장 ▲문정선 ▲홍승태 ▲양영두 등이다. /뉴스1